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수작 시상

‘함박TV’ 대상 · ‘우주티비’ 최우수

우수 · 특별상 포함 총 5팀 수상
전북예술회관서 비대면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전북도 관광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위해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전북예술회관 1층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은 '함박TV' 팀이, 최우수상 '우주티비' 팀, 우수상 '코비가' 팀과 '지평이미디어' 팀, 특별상 'KOREA Travel Guide' 팀이 각각 수상했다.

영상 조회 수, 관광코스로써 실현 가능성, 전북도 시군 지역 홍보 기여도 부분 등 전문가를 통해 우수작 5팀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접수된 78개 팀 중 14개 팀을 선발해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멘토링 교육, 비대면 워크숍 등을 통해 총 42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규모(그룹), 힐링, 청정, 언택트 등 달라지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가 눈길을 끌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 관광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위해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의 곳곳을 촬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제작하고 숨겨진 여행지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5팀의 작품은 재단 유튜브와

SNS 채널에서 홍보할 예정이며, 해당 시·군 협의를 통해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소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팀(063-230-746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결과 공유회 개최

내일부터 이틀간 유튜브로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가 오는 11~12일 2020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 결과 공유회 - 문화예술교육계(契)를 연다.

주관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그간에 진행된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특성과 고민지점, 변화 양상을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했다.

교육진흥원에서는 17개 지역센터와 협력해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등 각 지역별 대상

및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발전, 궁리, 실행, 리뷰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노력과 의미를 조망해 보는 '모여보게(契)'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는 '올 한해 돌아보게(契)'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전문지식 공유를 위해 ▲언택트 시대 유아와 함께하는 비대면 수업의 열린 가능성과 확장성을 모색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포럼 '새로운 일상 속 유아 문화예술교육계(契)' ▲생애전환 시기에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방향을 나누는 '발견하고, 시도해보게(契)' ▲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시설이 함께 보낸 시간을 담은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 한 사계(契)' 등도 마련된다. /뉴시스



죽산 박씨 종가 사당

(사진=남원시청 제공)

죽산 박씨 종가 사당 해체보수 완료

전북 유형문화재 180호 지정... 남원시, 문화재 보존·전승 추진

남원시는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80호(2000년 6월 23일 지정) 죽산 박씨 종가의 사당에 대해 해체보수를 완료하는 등 문화재 보존전승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목재 부식과 충해를 입어 붕괴 위험에 있던 죽산 박씨 종가 사당의 보존을 위해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체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죽산 박씨 종가는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고려말 충신 박문수(朴文壽)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으로, 박문수는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것에 반대해 두문동에 은둔했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가족들을 남원 호곡리로 내려 보냈고 그 후 후손들이 줄곧 이

곳에서 살았으며,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 안채 동북쪽에는 박문수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다.

남원시는 올해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을 통해 죽산 박씨 종가 사당해체보수, 환산대 철비지 탐방로 정비, 민복사지 석조대좌 보존처리, 과림리 석불입상 보존처리, 호암서원 배수로정비, 창주서원 마당정비 등 지정문화재 26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34억6,000만원(국비 13억8,000만원, 도비 10억4,000만원, 시비 10억4,000만원)을 확보해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는 남원읍성 등 지정문화재 22개소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30억4,000만원(국비 9억8,000만원, 도비 10억3,000만원, 시비 10억3,000만원)을 확보,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비대면 옥션 방식 '공예 라이브 온 프로모션' 진행

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코로나19 여파 공예시장 활성화 위해
18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방송
섭유 · 한지 등 수공예품 가격 '저렴'



왼쪽부터 김선애 지승솜칠잔, 방화선 목두선, 윤규상 지우산.

(사진=한국전통문화전당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공예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비대면 옥션 방식의 '공예 라이브 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9일 전당에 따르면 '콜라보-쇼 공예옥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행사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공예품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비대면 옥션 방식으로 그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펼쳐진다.

전주 지역 공예작가들의 작품과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모션은 오는 18일 오후 3시

부터 전주공예품전시관 유튜브에서 생방송되며 줌과 문자로 참여해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전북 무형문화재인 지우산, 부채, 지승을 비롯해 섭유, 한지, 도자, 조형, 매듭, 가죽, 목공 등 다양한 분야의 수공예품을 작품 설명과 함께 저렴하게 구매할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

(www.jonjucraft.or.kr)를 방문하면 간단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선태 원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침체한 공예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공예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공예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